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조길현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것이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수 있으며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농업부문에서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다.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올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자면 종자혁명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야 한다.

우선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주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물과 품종배치를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적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자연기후조건이 지역마다 농장마다 다르고 농장안에서도 포전마다 차이가 있는것만큼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는것이 실리적이겠는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가장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여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것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사에서 시기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적조건과 구체적인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어느때까지 하라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치기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야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물관리와 비료, 농약치기를 하는것과 같은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으로 전환하여야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또한 앞선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물,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가지 영농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 널리 일반화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물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어야 한다. 물절약형농법은 물을 절약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는 농사방법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 필요한 물소비량을 최소한 줄이면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농법이다. 물절약형농법은 21세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중요한 과학농법으로 주목되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도입되고있다.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여 물을 적게 쓰면서도 알곡수확고를 안전하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부침땅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담보로 된다.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여 토지리용률을 높이고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는것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세계농업발전추세이다. 농업부문에서 화학비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것처럼 여기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논밭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올해에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 질 좋은 거름을 논밭 정보당 20~30t이상 낼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집승배설물과 도시오물, 풀거름과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나가면 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 데서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축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물론 집집승배설물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수확고도 높일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면 축산을 활성화하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 좋은 방법이다. 올해에 림농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들에서 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림농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알곡생산도 늘이고 산들의 수림화도 다그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농업부문에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떠나서는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수 없다.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영농물자보장사업을 개선하여야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다.

농촌에 대한 영농물자보장에서 중요한것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보장하는것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전력과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질소비료생산과 함께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트랙토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고 전력과 연유, 박막과 농약 같은 영농자재들도 영농공정에 맞추어 시기별로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의 로력과 영농설비들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는것이 중요하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농업부문에서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는것이다.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내각과 농업지도기관, 협동농장들에서 생산조직과 지도를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생산조직을 실정에 맞게 하는것은 올해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모기르기, 모내기, 김매기, 비료주기, 가을걷이, 낱알털기 등 모든 영농공정별로 생산조직을 협동농장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조건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은 현시기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이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현시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다. 최근시기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 조건에서 협동농장들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옹계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은이 나게 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데서 분배를 철저히 사회주의분배원칙대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분배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분조들에서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다.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리해관계, 생활상요구를 옹계 타산한데 기초하여 알곡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 농업근로자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분발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농업전선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농업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 지휘를 짜고들어야 하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보장사업을 계획이나 내려보내고 사무실에 앉아 독촉이나 하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업전선의 담당자답게 농사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반화하며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돛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할것이다.